인수분해를 전개하라

(마22:23-33)

23.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33.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수분해를 전개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인수분해, 중학교 시절에 배운 수학 아닙니까?
전개는 인수분해의 반대라고 하면 정확한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인수분해한 것을 풀어내는 것이 전개가 되는 것이지요.
전개를 공통 인수를 뽑아서 괄호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 봅니다.
a+b+c가 있어요, 그것을 괄호로 묶습니다, 그리고 괄호 바깥에 k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한 것이에요, (a+b+c)k.
이걸 전개하면 괄호가 없어지면서 ak+bk+ck 가 되고, 이걸 인수분해하면 (a+b+c)k가 됩니다.
이게 인수분해이고, 전개예요.
수학에서는 (a+b+c)k = ak+bk+ck 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갖고 오면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을 인수분해의 형식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개의 형식으로만 성립합니다.
ak+bk+ck 의 형식으로만 신앙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 중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이 구절에서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인수분해와 전개의 의미를 신앙에 갖고 왔을 때.
32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라서 플러스, 플러스로 묶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립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붙어야지 신앙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베레스와 … 다윗과, 솔로몬과 … 이렇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혈연관계를 다 통틀어서 먼저 계산한 뒤에 그 더한 것을 k로 곱한다는 것, 이렇게는 성립하지 않아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전개되어야만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 더 심화되고 발전해나갑니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부활의 문제로 올무에 걸어버리려고 합니다.
계대결혼 풍습은 율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과부가 된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올려줍니다,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계대풍습이 있는데, 아들 일곱인 형제들이 차례로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할 때마다 썼던 논리적인 무기였던 것 같아요.
일곱 아들이 다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의 부활을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재미있어요.
계대결혼의 풍습은 없지만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홀아비와 과부가 결혼을 했다, 이 경우는 둘 다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입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고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배우자로 맞이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로 이 땅에서 살던 관계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다시 말해서 이 지상에서 부부로 살았던 육체가 있어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그 부부의 관계는 부활하는 게 아니다, 관계의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는 각자 부활을 하겠지만 그들이 부부로 부활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인해서 시작된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이 지상에서 하나님 것이 된 자들의 관계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 것이 되어 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관계로 사는 것인지 아느냐?'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형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이 맺는 관계가 변해버린다 이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했다는 뜻입니까?

이 지상에서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다 분절되어 버립니다.
마디마디 다 잘라져 버립니다.
그 누구도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맺게 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나가면서 하나님 관계를 맺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 끊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 때문에 맺게 된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관계할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인수분해의 형태로…

아브라함이 이삭과 어떤 관계입니까? 부자의 관계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경우도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수분해를 그대로 인정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분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실제로 몸도 죽었고, 또 몸이 살아 있어도 이삭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죽은 겁니다, 죽은 자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노예의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이 돈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돈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자식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형통, 이런 것들은 사물이고 비인격적인 대상이라면 자식이나 아내 남편은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낙인을 지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택노(擇奴), 노예 중에서 택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낙인을 지운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구원이고 해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적용돼서 모든 관계가 마음에서 다 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주는 나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내게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주고, 자식이 내게 아빠라는 정체성을 주지요.
또 부모님은 나에게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주고, 딸이라는 정체성을 줍니다.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서 다 분절되고 지워지고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도 아들도 남편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이미 인수분해 형태가 해체되어서 전개형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는 자가 이미 이 땅에서 돼버린다는 얘깁니다.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남편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미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다 지워져버리고 오직 깨끗이 지워진 상태에서,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 안에 살고 있는 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마음에서 다 지워져서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인수분해 형식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남편이 신경이 쓰여요,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남편과 연관되어서 걱정이 생기거나 기쁨이 생겨요, 이런 모든 것들, 신경이 쓰이고 있는 이 상태가 a+b가 괄호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이, 아내가 신경이 쓰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a+b, a가 남편이고 b가 아내라면 a+b를 괄호로 묶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신경을 쓰던 긍정적으로 신경을 쓰던 이 둘이 +로 묶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활을 해도 부부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관계도 부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서 모든 관계가 다 분절되고 깨져버립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도 남편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먼저 묶입니다.
a+b가 괄호로 묶여 있다가 이제는 ak+bk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나 남편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ak로, bk로 묶인 상태에서 만나는 거지, 내가 (a+b)로 묶여서 k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a+b)로 묶여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관계가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가 다 깨져나가느냐?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깨져나가고, 내 마음에서 분절되는 것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이어서 얘기할 때 혈연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혈연관계, 혈연이 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내가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와 부부관계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이라는 사회적인 규약이 두 남녀가 부부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내 자식과 내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혈연을 근거로 해서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면서부터 혈연관계라고 하는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도에 의해서 두 남녀가 부부로 맺어져 살게 되고 부모자식이 맺어져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나가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아내를 마

음에서 버렸어야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떠나지를 못해요, 그 무방비상태의 유랑민의 입장에서 치안부재의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아리따운 아내를 지켜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려면 마음에서 아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버렸어요, 이미 버린 마음의 상태가 표현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삭도 바칩니다, 마음에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관계를 유지하도록, 혈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붙듭니다.

또한 사라와 아브라함이 부부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결혼했다고 하는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그 두 남녀를 붙들어서 부부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신경을 씁니다.
사라와 플러스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인수분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식 때문에 기도한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자식을 전혀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자식에 대한 신경이 끊어져야, 완전히 남남이 되듯이 남의 일이 돼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식보다 먼저 보고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서 자식에 신경 쓰는 일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낙인이 찍힌 상태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워지고 완전히 자식과 내가 관계가 분절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분절되어서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돼서, 관계 맺는 대상으로 하나님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에 대한 뜻을 엄마라는 위치에서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게 된다

는 얘기예요.

부활 때에 부부관계, 부자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이야기 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 관계의 틀, 이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몸이 없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맺어진 관계 안에서 그대로 내가 아버지고, 아내고, 남편이고, 딸이고,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것도 아니고,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수분해의 형태로 내가 지금 육체를 근거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신경 씀으로써 인수분해의 괄호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전개시켜나가야 됩니다.
전혀 그 사람들이 나의 인격에 관계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들에 대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같이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다음 부분에 나와서 우리가 내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안 됩니다.
모든 항을 전개시켜 나가야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관계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수분해 형식을 띠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나부터 전개해서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